

투데이 칼럼

집안을 세우려면 독서하라

오 심보감 입교편 3장에 나오는 글귀다.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도리를 따름은 집안을 유지하는 근본이다. 부지런과 절약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복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송대 유학자 주자(朱子) 역시 '거가사본(居家四本: 가정의 네가지 근본)'을 밝혔다.

화순(和順), 근검(勤儉), 순리(循理), 독서(讀書)라 하여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은 독서에 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읽어서 알면 나는 백 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열 번 읽어서 알면 나는 천 번을 읽는다고 했다.

다산 정약용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글 읽는 소리'라 했다. 유배지에서 두아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은 독서에 있으니 책을 읽고 저술하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

또한 사람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이 바로 집안을 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 했다.

'자식이 책을 열심히 읽어 공부 잘 하면 그것이 곧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다. 자식을 순리대로 살도록 가르치면 그 자식은 사회적으로 명성을 일으키지 않고 가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자식을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키워 아편이 가정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고 자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가정에서 웃어른은 아랫사람을 너그럽이 대하고, 아랫사람은 어른을 존경하고 따라야 만이 가족이 화목하면서 질서가 선다'고 했다.

링컨은 독서로 자신과 미국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세계인들은 노예를 해방하고,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의 연방정부로 만든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는다.

이토록 뛰어난 인물, 위대한 인간 승리의 비결은 '끈질긴 독서력'에 있었다. 불우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집이 가난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링컨이 9세였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를 맞이했다.

다행히도 새어머니는 책임감을 좋아해서 링컨에게는 구세주 같은 인물이었다. '성경, 이솝우화, 천로역

정, 워싱턴 전기'를 읽고, 애국심과 정치의 힘, 사회문제 등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링컨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풍부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링컨의 생애는 선거에서 일곱번 낙선과 두번의 사업에 실패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때마다 '독서의 힘'으로 7년 8기하여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대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에게 '한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둘은 똑같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책을 읽는 능력을 원한다.'고 했다.

이름난 세계 부자들 대부분은 독서를 통해 통찰력을 길렀고, 이 통찰력이 그들에게 부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송나라 때 개혁정치였던 왕안석은 '독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

꿔 놓기도 하고, 한가문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글을 많이 읽어서 학문을 닦아야만 입신출세하며 큰 사업을 이루어 이름을 천사에 빛낼 수 있다.

배우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리에 어둡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가난한 자는 독서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는 책으로 귀하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책을 읽어서 현명하게 되고, 현명한 자는 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다.' 옛 선현들이 남겨준 깨우침이다.

정민교수는 '오직 독서뿐' 서문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 틀림없다.'

'도대체 책을 안 읽고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는다. 책을 통해서만 생각이 깊어진다. 책 안에 원하는 대안이 있다.'고 했다.

조선조 학자 허균(許筠)은 한정록에서 '오직독서만이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주고 해로운 일을 주지 않으며, 오직자연만은 이로움을 주고 해로운 일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책을 가까이 하면 집안을 살리고 직장을 세우며 나라도 세운다. 그러나 책을 멀리하면 번영도 없고 미래도 없음을 명심해야겠다.

김재춘

전.완주중앙초등학교장



독자제언

후유증 큰 가정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이뤄져 재발률이 높고 가정폭력을 경험 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 성향이 세습되어져 학교폭력,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 후유증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의 분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등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폭력행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퇴거 등의 격리, 100m내 접근금지

(전기통신포함), 친권행사 제한을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경찰, 병원,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도훈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음주운전 더 높은 처벌 기준 정해야

최근 연이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각종 뉴스에 자주 보이는 것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앞서 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계속돼왔음에도 경각심 없이 크고 작은 음주운전들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한 음주운전자가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타고 가던 자동차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사전 예고 후 전국적으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예고된 단속에도 전북에서만 27명이 적발되었다.

정성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와 보행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70%가 넘게 사망케 된다는 통계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날 비라를 맞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 가야 한다.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보면 일 부운전자들은 '한잔만 먹었는데 봐 달라', '윤이 없어서 단속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인근 주점업소 업주들은 대놓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경기도 안 좋는데 음주단속을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의 방조자도 처벌되는 처벌 강화 방안이 생길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박진희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설

국토부의 동서철도 건설 계획에 말한다

국토부가 동서 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까지, 전주에서 김천까지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한 것이다. 건설 공기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인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도와 도민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지 동서 철도 건설 요구는 그 역사가 깊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 이전 부터였던 걸로 기억된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번에 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하는 가운데 도민들이 동서 철도 건설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요구를 들어 줄 것 처럼 하다가 없던 일로 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국토부가 과거에 보여준 그 같은 태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그동안의 행태를 생각

하면 도민들은 국토부에 섭섭함을 말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를 통해 국토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다. 전북도는 그 지역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도는 지금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확연히 비교 구분돼 버린 지는 이미 오래이다. 그 게 수십년 동안 그래왔으니 이쪽은 낙후의 정도가 심하다.

전북도는 이런 모습이 국토 균형발전론에 반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토부의 이 중심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론을 계속 말하면서 동서 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도록 해야겠다.

현안 사업들 어디쯤 와 있다

도내 현안 사업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다. 추진이 되고는 있다지만 지지부진하기에 갖게 된 궁금증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전북도의 말대로 정부 부처들의 탓 때문이라고 해도 이 대로는 곤란하다. 남의 탓만하기에는 세월이 아깝다. 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되뇌어서는 안 된다.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 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역 발전에 무한 책임을 맡은 이상 전북도는 생각을 바꿔야겠다.

전북도는 현안 사업 추진에 계속 힘을 내야한다. 지금 이대로는 만족을 말할 수 없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미리 기죽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격려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북의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전북의 오늘을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 비교하는 게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로 자체 비교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어느 지자체가 그러했는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물론 그 비상한 각오의 당사자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들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현재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새만금 사업과 탄소사업이 먼저 떠오르는 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그저 고만고만하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이 미약하니 도민들은 여간 불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분발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한다. 미래를 약속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망은 성취도를 보여줬는지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 부처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더 뛰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말한다. 지역 발전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브레인들의 구상이 치밀해야겠다. 그리고 행보 또한 활발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